



외대학보

진리 평화 창조

1997년 11월 24일(월) 제702호 창간 1955년 4월 11일 <주간> 발행인 안병만 편집인 권기환 주간 변재철 편집장 김태형 인쇄인 홍운주 외대신문사 961-4151, 962-7120(주) 외대복합 학생기자실 (서울961-4152, 4466 FAX 961-4183 (음인) 0335-30-4112 서울시 동문로 270 경기도 용인시 오현면 원성리 산 89

총장선거 12월 3일 교수투표로 시작 결선투표 15일, 재단(학교법인) 2월초 확정

우리 학교 6대 총장선거가 오는 12월 3일(수) 대강당에서의 전체교수임시총회 및 예비선거를 시작으로 재단법인의 최종임명까지 약 2달간의 일정으로 실시된다.

지난 94년 우리 학교 최초로 직선제 방식이 도입된 후 두번째로 치러지는 이번 총장선거의 후보자는 오는 3일(수) 있을 예비선거에서 1차로 10명이 결정되고 재투표 후 투표 순으로 5명이 최종결정된다.

후보로 결정된 5명의 후보자는 이력서와 공약 등을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정경호 포스트말이 교수, 교수협의회 회장)에 제출, 선거위가 이를 각 교수에게 개별적으로 공람한다. 따라서 각 후보들의 공약은 3일(수) 이후에나 구체적으로 드러날 예정이다.

이어 오는 15일(수) 결선투표를 진행, 2명을 최종합격하고 법인이사의 회의를 거쳐 총장 취임자인 2월초순 경 이중 1명을 총장으로 발표한다.

이와 관련, 선거관리위원회 정경호 교수는 "과거 공약들을 살펴보면 학교발전·행정체계·모교문명 등에 관한 공약이 주로 나왔고 올해도 비슷하리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총장선거와 관련, 동아리연합회장 이정환(서양·불어 4)군은 "교수들만의 총장이 아닌 학생의 총장인 만큼 학생·직원 등의 다른 주체도 참여할 필요가 당연히 있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정경호 교수는 "교수들이

후보자에 대해 잘 알고 있고 다른 주체가 참여할 경우 후보자가 그들을 선동할 수 있기 때문에 혼란의 우려가 있다"며 일축했다.

한편 지난 94년 첫 총장선거가 시행될 때는 직원과 학생들이 참여를 주장하며 대학당국과 마찰을 빚기도 했다.

▶관련기사 10면

서울경 기자



정책대결

지난 20일(목) 서울메트로에서는 32대 총·부학생회장 후보들의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토론회는 31대 총학생회 사임에 대한 각 후보들의 평가를 듣고 후보들의 공약을 점검하는 자리였다. 그러나 토론회 장소에는 선거운동원들을 제외한 일반 학생들의 참여가 낮아 아쉬움을 남겼다.

양배움터 단대선거 치러져

서울 - 사회·동양·동연·법

서울 메트로 학생선거는 지난 주 사회학과 동양대, 동아리연합회, 법대가 각 각 선거를 치렀고 이번주부터 총학생회와 사임대, 상경대, 사범대 선거가 진행됐다.

지난 19일(수) 진행된 사회대와 동양대의 선거결과로, 재직인원(572명)의 79.9%인 454명이 투표에 참가한 사회대의 경우 2번 이원수(신상 3)군이 기호 1번 김동철(경의 3)군을 2표차로 이 근소한 차로 누르고 당선됐다. 이에 비해 1743명 중 972명(55.7%)이 투표에 참여한 동양대에는 기호 1번 이준석(이원 4)군이 기호 2번 김용준(이원 3)군을 400표가 넘는 표차로 누르고 당선됐다. 또, 동아리연합회에서는 출마한 양 후보 중 지난 20일(목)의 개표결과 125표를 얻은 기호 2번 이상진(불어 3, 통일문제연구)·조경태(법 3, 세인트)·조가 89표를 얻은 기호 1번 이종근(사범어) 3.

목구부)·윤수민(한교 3, 고전기타반)·조에 낙선했다.

총 535명 중 280명이 투표에 참여한 법대학생회장 선거의 경우, 92.85%의 찬성률로 권영호(4)·이동원(2)·조가 내린 법대를 책임지게 됐다.

기호 1번 차재훈(포스트말 3)·정기용(영어 3)·조와 기호 2번 홍성준(독일어 3)·김나리(불어 2)가 경합을 벌이고 있는 서양대에는 오는 25일(화), 김진원(영교 2)군이 단독입후보한 사범대는 24일(월)·25일(화) 각각 선거가 치러진다.

가장 늦게 선거를 치를(12월 2·3일) 상경대는 현승연(경향 3)만이 입후보, 상경대 최초의 여 단대생 탄생에 눈앞이다.

한편 32대 총학생회 후보로 입후보한 기호 1번 노소호(사상·영어 3)·김세윤(동양·태국어 3)·조와 기호 2번 오승훈(상경·경향 4)·강성삼(사회·신상 4)

용인 - 자연·총여 확정

조는 지난 20일(목) 278명 중 278명만 투표한 자연·총여 확정

▶관련기사 3면

용인

지난 18일(화)·19일(수) 양일간 치러진 18대 자연대 학생회장 선거에서 단독출마한 김영철(물리 3)군이 재직인원 945명 중 513명이 투표, 84.2%(432표)의 찬성률로 당선되었다. 또, 같은 날 열린 10대 총여학생회 정·부학생 선거에서는 '일상의 반란'을 모토로 단독출마한 배선애(사하·영어 2)·박희정(사하·영어 2)·조가 재직인원 278명 중 1010명이 투표, 91%(900표)의 찬성률로 당선되었다.

이날 18대 자연대 학생회장으로 당선된 김영철군은 "이번 선거를 통해 학생들의 학생회에 대한 불신을 많이 느꼈다"며 "학우들을 학생회의 주인으로 설

수 있게 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또 10대 총여학생회장으로 당선된 배선애안은 "여성들에 대한 편견들을 일삼적인 생활에서 하나 하나 깨어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며 "현재 계획으로는 성폭력에 대처하기 위한 학칙 제정을 위해 다른 학교와 연대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동양학대 학생회장 후보로는 기호 1번 양승일(태국어 3)군과 기호 2번 안혜영(아프리카어 3)군이 출마했으며, 오는 3일(수)·4일(목) 양 일간 치러질 예정이다. 또 경향대 학생회장 선거는 12월 1일(월)부터 3일(수)까지, 동구대 학생회장 선거는 3일(수)·5일(목), 공대 학생회장 선거는 4일(목)·5일(목) 양 일간 치러질 예정이다.

서울경·홍연희 기자

우리학교 교육개혁우수대학 선정

대학세계화 방안... 5억 8천만원 지원받아

우리 학교는 지난 11일(화) 교육개혁 우수대학 40여개 대학 중 대학세계화 방안 선정에 따라 5억 8천만원의 지원금을 받게됐다.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실시된 이번 심사는 △학생선발 △교육과정 △교육환경 △대학특성 △대학비교 등 9개 분야에 걸쳐 33개 대학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우리 학교는 지난해 선정된 덕성여대

등 12개 대학이 올해 탈락되는 대신 새로 선발된 12개 대학 중 하나로 뽑혔다. 지원금은 이미 우리 학교가 국제전문인력양성사업(국제화)으로 선정돼 있는 관계로 원래 지원액인 11억 6천만원의 1/2만 받는다.

지원금은 지난해 임금였으며 현재는 사용용도가 명확히 정해지거나 밝혀지지 않았다.

박병수 기자

'97 전국농민대회 열려

농축산물 가격보장·농가부채 해결

전국농민회총연맹(전총, 의장 이수광)과 전국여성농민회총연맹(여총, 의장 오송자)은 지난 11월 18일 여의도 고수부지 금성무대에서 '농축산물 가격보장·농가부채 해결을 위한 '97전국농민대회'를 열었다.

이날 농민대회에서 3만여명의 농민들은 △농축산물 가격보장 △87년 약정수매가의 제조장과 정부의 98년 약정수매가 동결 방침 철회 △농가부채 상환유예 해결 △의료보험 완전 통합 △WTO 이행 특별법 시행령 제정을 통한 국내 농업 보호 등을 한 정부에 촉구했다.

전총 이수광 의장은 "김영삼 정권의 수임개방 정책과 신농정의 실패와 농민

의 피해폭이 넓어지고 있다"며 "현정권은 내년 추곡수매가 동결 방침을 철회하고 농축산물 가격 보장과 농가부채 해결 방안을 즉각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 의장은 "미국의 아비환수인개방 압력에 굴복하지 않고 국익을 지킬 수 있는 사람, 자취적인 부자들 통해 농업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을 이번 대선에서 선택하자"고 주장했다.

이날 농민대회에는 국민회의 김대중 총재, 국민신당 이인제, 국민승리21 권영길 대동원 후보가 참가해 현 농정의 실효에 대해 이야기하고 농촌문제 해결 방안을 각각 제시하기도 했다.

허윤숙 기자

서울, 학생식당 직원 파업 선언

식당 임대업자로 교수식당 업자 선정 관련

임대나 직영이냐의 기로에서 대학내국과 학생사이의 논리가 뚜렷히 진행되지 않은 서울메트로 학생식당문제가 직원들의 파업선언으로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30여명 되는 학생식당 직원들은 "주요인 임대라는 무기한 연기라는 발표가 있었지만 며칠만에 임대를 추진한다는 소문을 들었다"며 이렇게 불만을 나타내며 일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직원들은 임대업자들의 사업설명회가 열린 다음날인 지난 19일(수) 저녁 파업결의 대자보를 식당내에 부착했다.

이와 관련, 학생식당 운영사 이철형(27)씨는 "임치이므로 단정히 많은 일제를 반대하지만 이날 임대를 한다면 열영농하는 전문업체에게 맡겨야 한다"며 "그러나 현재 선정될 가능성이 많은 교수식당 업자는 전혀 자격이 없다. 우리가 피뎌줄러 임하는 성과를 말하는 것을 보고 있을 수 없다"고 파업 통지를 밝혔다.

파업은 교수식당 업자가 학생식당 임대업자로 선정되는 그날부터 시작될 예정이다.

홍연희 기자

자~알 적으라고?

50% 확률의 승부수? 아닙니다.
우리 외대의 총·부 학생회장 선출은 게임이 아닙니다. 두 눈 크게 뜨고 후보자들의 공약을 꼼꼼히 따져 보고 찍읍시다

민족자주언론
외대학보

서울메트로 32대 총학생회 정·부회장 선거 투표일: 11월 25일·26일 투표장소: 도서관 앞

지면 안내

서울 총학생회 정·부 후보 정책토론회 3면
한총연·학자투쟁에 대한 양호수 견해 알아보기는 자, 서로 비방만하는 자리는 아니었습니다.

인문학의 위기, 와대에도? 6면
우리학교 교양과목의 수강인원을 조사해보니 역시나 '철학'이 최하위요... 철학이 사학(死學)이 되려나.

정치와 스포츠 7면
스포츠로 인해 국가간 전쟁, 국교단절, 테러 등의 사태까지 발생한다는 데... 정치가 커온 스포츠 이해는 '철충어'로 보아야겠다.

공인기관과 학교의 학생회 선거 '한' 매기 뭐냐 8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탄압'이 시작됐다. 프락치가 동원되어... 한 남치까지 이뤄지고 있다. 노심 분투, 대신이든 학생회선거든 제발 좀 투표할 맛 나게 가만히 좀 놔두라.

강용욱 교수의 책읽기 관행의 논쟁 2면 12면
경기 후 특정 종교관련 발언으로 물의를 빚고 있는 저범군 감독, 강용욱교수와와 논쟁으로 세인의 관심을 끌고 있다는데... 저범군의 외침, 우리를 시위에 함께 마음고치고...

우리에겐 '박정희'가 필요없다

성장제일주의, '반역사성' 가린다

반김정서 타고 박정희 동조세력 '우상숭배' 부추겨

지난호에서 박정희신드림의 등장을 뒷받침해주고 있는 세가지 기본 논리를 분석. 반박하는 정성호 씨의 글을 실었다. 이번 호는 동국대 사회학과 강경구 교수의 '박정희 증후군'이상의 파괴와 우상의 신화'라는 글을 실었다.

이 글은 박정희증후군을 이상의 파괴와 신화로, 또 우상의 신화로 규정짓고 보다 합리적 기준, 객관적 자료, 과학적 분석 등을 통하여 박정희증후군이 이상의 파괴이고 우상의 숭배라는 것을 밝힘으로써 다시 이상의 '역사화'라는 반역사적 파괴성을 밝히지 않을 것을 촉구하고 있다.

편집자

(글쓴이 순서)

- 1 박정희신드림이 한국민주주의의 조과 역사적 유산 - 정성호(고려대 정교과 박사과정)
- 2 '박정희신드림' : 양면적 파괴와 우상의 신화 - 강경구(동국대 사회학과 교수)

어떤 정권에 대한 총체적 평가는 그 정권의 정통성 및 정당성의 획득 여부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보편적이다.

박정희정권에 대한 평가도 이러한 기준에 의해서 총체적으로 평가될 수 있는데 그 정당성의 세부적 기준은 권력부리정당성, 권력합성정당성, 권력행사정당성으로 나눌 수 있다.

권력부리정당성에 대한 평가는 정권출발이전 요구되는 민주사적 핵심과제에 대하여 정권

의 핵심과제가 어떤 실천행위를 하였는가를 기준으로 이루어진다.

박정희의 경우 민주사적 핵심과제는 가깝게는 4.19혁명, 멀게는 4.19혁명의 공교회와 민족자주통일을 위한 실천행위였고, 멀리 있는 일제식민지하 민족해방투쟁에 대한 실천행위이다.

박정희는 자발적으로 일본 제국주의의 관동군정으로부터 민족해방투쟁을 전개하는 항일연군을 상대로 전투를 벌인 적극적인 민족반역행위자였

다. 또한 박정희는 반독재민주화를 1차목표로 시작하여 민주자주통일로 나아가고 있는 4.19혁명의 역사적 지향에 대하여 5.16군사쿠데타라는 반민주적 내란으로 정권을 장악하여 민주주의의 뿌리를 잘라버렸고, 쿠데타 공작에서 반민주적 주동임을 천명하였다.

'권력합성정당성'에는 경기규칙정당성, 경기규칙정당과정의 정당성, 절차정당성 등의, 3가지 하위개념들이 있다. 박정희정권은 초기에 반독재민주화를 지향한 4.19혁명을 통해 권력을 찬탈한 경우이며, 이후 유신정기까지 63, 67, 71년 대선을 정권유지를 위한 불법정당선거의 권력으로 만드는 등에서 알 수 있듯이 박정희의 권력합성은 극단적인 반정통성으로 판별될 수밖에 없다.

'권력행사정당성'은 민주사적 핵심과제와 당시 당대사적 보편과제에 대한 올바른 실천이나 구현정도, 일상적인 통치행위과정에서의 권력행사 여부, 합법성, 민주성, 민중성, 지도력, 그리고 도덕성을 갖추었는가에 의해 판별된다.

우선 민주사적 핵심과제 설정은 해방공간이나 이승만정권에서 실종된 민주사적 핵심과제의

계승과 4.19혁명이 지향한 이념의 수용이다.

이러한 민주사적 핵심과제라는 범주 가운데 첫번째의 인격, 품위 정신을 포함한 일제식민지정권은 박정희의 경우 태생적으로 불가능한 과제였다.

두번째, 통일이란 조상에서는 오히려 민족통일을 정권안보와 자신의 독재권력구축 및 유지의 수단으로 한낱 악용한 선례를 남겼다.

세번째 민주주의 제도화와 공고화 역시 철저한 부정의 연속이었다. 헌정질서를 총칼로서 짓밟고 권력을 강탈한 쿠데타, 장기집권을 금지한 헌법정신을 날치기로 강제한 3선개헌, 1인영구독재를 제도화한 유신체제, 인혁당사건 등에서 보듯 국민의 기본권탄압, 비상계엄이나 긴급조치의 단골화, 중앙정보부의 고문과 간첩조작행위 등으로 박정희의 반민주성은 극에 달했다. 반외세자주화의 경우는 박정희는 이승만정권의 대미 일일적 종속에서 대미, 대일의 이원적 종속을 초래했다.

대내사적 보편과제는 절대적 빈곤으로부터 대중을 해방시키는 경제발전, 정치 영역에서 일당생각을 영역으로의 민주화 확산, 민족자주 양양, 정권유치의 단절 등이다. 이 가운데 경제발전의



경우 비록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빈곤퇴치라는 점에서 매우 긍정적인 성과를 거두었다. 그러나 일상생활의 민주화, 민족자주화, 법치주의의 규범화, 정권유치의 근절 등에서는 부정적일 수 밖에 없다. 이 밖의 권력행사에서는 군사지배통치, 지역감정의 조장화 및 구조화, 박정희 개인의 공작이미지의 대중화와 사적 영역에서 반독재의 극치, 박정희자신부터 권력정착에 관여한 부정부패, 공직정치의 공포정치와 일당화, 성장제일주의 등의 부정적 요소들이 이후 우리 사회에서 역사적 골때림으로 작용해

왔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러한 반역사성에 불구하고 죽은 박정희의 망령이 다시 살아나 우상화가 확산될 기미를 보이고 있다. 이는 광주민주화투쟁과 6월항쟁이 미완의 혁명으로 끝나므로 이승만정권에 대한 철저한 부정인 4.19

혁명과 같은 역사과정을 거치지 않고 유신정권인 정두환과 노태우로의 권력승계, 3당합당이라는 과정을 거쳐 김영삼의 권력승계라는 역사과정을 거친 장기적 역사행로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유신독재의 단절을 기하지 못하여 잔존세력이 언제든 복권을 노릴 수 있는 구조를 형성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김영삼정권의 권력행사정당성의 상실이라는 국면적 계기로(한보비리와 김현철의 국장논란, 피부보 노는 경제상황의 악화 등)이들 잔존세력들이 박정희가 뿌린 군사문화주의, 성장제일주의, 역사모멸주의 등에 의지하여 또는 무의식적으로 김영삼 수많은 박정희 동조자들에게 박정희의 복귀위주의 강력한 지배력과 경제성장에 대한 향수를 부추린 결과물이라고 볼 수 있다.

학술 단신

서울, 독일어과 학술제

독일어과 학회 '현실'의 학술제가 지난 13일(목) 대학원관에서 열렸다.

학술제는 97년 대선을 앞둔 한국사회정세, 현시기 정치·경제 분석, 노동자민중의 독자적 정치세력화를 주요 내용으로 발제와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되었다.

이번 행사와 관련해 한글을 화강 서희경(서양·독일어 2)은 "학회가 생긴지 1년정도 되는 데 처음으로 갖게되는 학술제가 많이 기대가 된다. 과학기술을 주요 내용으로 겨냥한 토론회이기때문에 깊이있는 논의가 되지 못하는 점이 좀 아쉽다"고 소감을 밝혔다.

제 5회 신문방송학과 학술제

지난 22일(금) 신문방송학과 여학생부(여학생) 주최로 '모성'에 대한 신화'라는 학술발표제가 열렸다. 신문방송학과 학술제의 하나로 열린 여학생들의 학술제는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무리없는 해방', '배아비 세일' 등 비디오에 나타난 모성, 모성에 대한 발표를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이번 발표제에서 사회를 맡은 박미진(사회·신방 2)은 "이번 학술제를 통해 좀더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생각들을 공유하고 싶었고, 나아가 여성문제에 대한 깊이있는 논의가 활발해지길 기대한다"며 이번 학술제의 취지를 밝혔다.



인문학은 더이상 필요없는가

수강신청분석... 외대생도 '철학' 꺼린다

사, 언어학 등의 순수인문과학을 일컫는 '인문학'의 개념은 흔히 좁은 의미로 통용된다.

인문학의 위기는 전국의 대학에서 인문학 관련 교양강의가 수강인원미달로 폐강되거나, 필수과목에서 선택과목으로 바뀌면서 과목수도 축소되고 있는 현상으로 충분히 설명될 수 있다.

그렇다면 외대의 '인문학'은 안전한가?

한국정치경제사, 한국사상사, 한국사개설 등의 과목이 현재의 '한국근현대사'로, 서양현대사의 동향, 서양문화사, 현대의 '서양사입문'으로 통합되는 등 학과편제가 있는 영역이 통합, 축소되는 분위기는 우리학교도 마찬가지이다.

그러나 우리학교에 개설된 '인문학' 강의는 30여개로 경제대(24개), 이화여대(16개), 연세대(13개), 홍익대(6개) 등에 비하면 폭이 넓고 다양한 편이다.

이것은 우리 학교가 다른 학교에 비해 압도적 다수의 학생들이 '문화' 출신이며, '외국'이 선택이 아니라 필수수업으로 선정되어 있는 까닭에 그만큼 더 필요한 교양선택과목을 '인문학' 과목으로 보충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문화출신이다보니 자연히 인문학쪽으로 관심이 간다. 그리고 학교 교양과목 자체에 인문학이 많기 때문에 인문학을 선택하게 된다"라는 김준기(상경·무역 2)의 말은 이를 잘 드러내준다.

그렇다면 어떻게 개선되어 있는 인문학 강의를 수강하고 있는 학생들은 얼마나 될까?

이번 학기 교양선택 과목별 수강신청인원수를 조사한 결과, 100여개 교양선택 과목 중 30여개를 차지하는 인문학 강의는 수강신청인원수에 따라 이번 학기 가장 인기있는 강의 1위~5위 중 2개('문예사조사', '국어학'), 가장 인기없는 과목 1위~5위에도 2개('철학의 역사', '한국학의 이해')가 포함되어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1위에서 100위까지 골고루 분포해있는 인문학 중에서도 '한국사입문', '한국근현대사', '서양사입문' 등의 역사학이 선두에 있고, '서양문화사', '한국사상개론', '한국문화의 이해' 등의 문학은 중간에, '철학개론'이나 '사회철학', '철학의 역사' 등은 거의 하위권에 위치해 있다.

80년대, 학교에서 가장 큰 강의실이 터지나갈 정도로 수강인원이 많았다는, 소위 인문학의 대표격인 '철학' 관련 강의가 위축되고 있는 현실은 외대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것이다.

"인문학은 재미없고 좀 고리타분하기때문에 웬만한 신중하지 않는다. 차라리 컴퓨터나 정보관련한 강의가 훨씬 재미있고 도움이 된다"고 말하는 이은희(서양·불어 2)의 말은 인문학을 꺼려하는 최근의 분위기를 그대로 드러내고 있다.



인문학을 연구하는 교수들의 공개적인 문제제기, 언론의 보도 등을 통해 요즘들어 더욱 '인문학의 위기'가 화제되고 있다. 우리학교에도 당연히 '인문학'이 존재하고, 교양과목으로 인문학을 수강하고 있는 학생들이 있다. 그렇다면 외대 '인문학'의 현실은 어떠한가, 문제제기와 대안은 무엇인가?

또한 인문학 위기의 요인은 인문학을 외면하는 '사실'인가, 아니면 외면하는 '인문학'인가?

본보는 이러한 의문점을 풀기 위해, 외대 인문학의 현실을 분석하고, 인문학종사자들의 고민을 중심으로 대안을 모색하는 기획을 마련했다.

편집자

(글쓴이 순서)

- 1 외대의 인문학 1 - 인문학 교양과목 분석
- 2 외대의 인문학 2 - 인문학 학생들의 목소리를 듣다
- 3 인문학의 대안 - 인문학연구소를 찾아

인문학(人文學)! 넓은 의미로는 자연과학에 대해 '정신과학'을 통틀어 이룰 때, 좁은 의미로는 사회과학에 대하여 철학, 문학, 역

NEW BEST
새로운 기술, 최상의 서비스

나도 콧다리 뽀빠이...
학과 공부도 물론 중요하지만
컴퓨터도 영어도 안된다
무엇인가를 배우고 싶단다
춤도 한참 해야 하고, 토론도
한 톨음 해야 한다 내 분야에선
내가 "자자"이 되어야 한다.

“자”
이동전화의
PCS 016

한 분야의 정은 그냥 태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남들보다 더 많이 노력하고,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하는 열정이 필요합니다.
이 땅의 이동전화에도 “자”가 있습니다.
100년 동안 이 땅을 빈틈없이 연결한 한국통신의 노하우와 첨단 기술로 만들어진 PCS 016- 망설레, 망구족, 망문염에 이르기까지, 통신전문가만이 드리는 확실한 차이를 느낄 수 있습니다.

한국통신프리미엄이 만든 PCS 016- 통신만큼은 전문가에게 맡겨야 합니다.

소리가 보인다
PCS 016
한국통신프리미엄

이제는 꽃이 아니라 "자자"이 있습니다.
통신에도 "자자"이 있습니다. 고풍의 16색.



④ 스포츠의 정치 - 정치, 스포츠에 몰입하다

정치가 부여한 스포츠의 파괴력

정치·자본으로 드리워진 먹구름 걷어내야



력이 결정된다. 한국에서 월드컵이 열리는 2002년에는 정몽준씨(현 FIFA 부위원장, 대한축구협회장, AFC 부회장)가 대통령에 필라도 모르다는 풍문이 돌린다. 이런 의문이 나왔던 끝난 98 정몽준 월드컵 아시아지역 예선에서 자국팀이 카타르에게 패한데 책임을 물어 무스타파 하세미 티바 부통령(체육위원회 위원장 겸임)의 해임을 요구하고 나섰다. 스포츠가 정치인의 생명까지 좌우하는 실정이다.

이처럼 거대세력 스포츠의 힘은 어디에서 오는가. 결코 자본주의와 관련 있는가의 파국적 가능성을 가늠 수 있는가. 그 절편부터 말하자면 아니다. 그 절편이 근원은 바로 '정당'이다. 정치인들로부터 오늘날 스포츠의 거대함을 짐작한 자들 중으로, 스포츠에 너무나 큰 의미를 부여한 나머지 자신의 창조물을 다스릴 자격이 없다는 심판까지 일러준 한 집안이 있다. 그렇다면 왜 정치인들은 스포츠를 필요로 했을까. 미국의 예를 살펴보자. 1차 세계대전을 통해 미국의 경제력은 막대한데도 신체유형에 군비투자에 적합하지 않는 사실은 계속되었다. 1차 세계대전은 명백한 전쟁터 정쟁이라는 군인의 대량 신체유형을 요구하는 실존적 조건과 조종 보여준 모든 군인의 신체유능은 미국 군사력에 대한 심각한 위협처럼 보였다. 결국 정치인들은 젊은 이슬람 신체를 건장함 향상시키기 위한 계획적 노력을 시작한다.

시선에서 집권층 스스로가 공인한 정책과 본인이 인식한 정책의 차이점이 존재할 것이다. 집권층의 대중성과 정책 성향이라는 두 축을 중심으로 이해할 때 한국과 미국을 잘 알아보는 최의의 상품으로 떠오른 것이다. 한국의 정치인들이 이처럼 매력적인 상품을 그냥 자라볼 리 없었다. 박정희의 성공은 유언에 대한 거창한 갈수록 커져서 올림꼴을 개화기로 바꾸어놓은 데 있었다. 또 정권은 정치인으로서의 대중성에 대한 저항을 무마하기 위해 정치인에게는 군주처럼 시 프로구나를 만들고, 수십억원에 뿌려 돌림꼴을 유지하는데 성공했다. 특히 박정희의 출생은 보통의 스포츠 선수와 달리 정권은 유언에 대한 저항을 무마하기 위해 정치인에게는 군주처럼 시 프로구나를 만들고, 수십억원에 뿌려 돌림꼴을 유지하는데 성공했다. 또한 정권은 유언에 대한 저항을 무마하기 위해 정치인에게는 군주처럼 시 프로구나를 만들고, 수십억원에 뿌려 돌림꼴을 유지하는데 성공했다. 또한 정권은 유언에 대한 저항을 무마하기 위해 정치인에게는 군주처럼 시 프로구나를 만들고, 수십억원에 뿌려 돌림꼴을 유지하는데 성공했다.

『소흐』가 국사학적 전제에서 사상을 집합하는 중대한 '일침도두'로 다가와 있어 한 소흐의 영향력을 주는 정치적 문제는 영원히 풀기 어려운 문제인 듯하다. 거기서 우리는 또한 한 가지 사실을 접했다. 바로 삼십년의 침묵다. 정후한 정치집단 현개기업은 프로크루가 국을 만들지 않아도 되는 특혜를 받았다. 초창기의 프로크루는 오늘날과 달라서 국을 만들지 않고 국을 그어준 대가들을 통한 국안집단을 개화하는 생각이었다. 국은 물론 의무를 부과하지 않고도 한다면 그는 다른 거기에 비해 유려한 입장을 견지할 수 있고 그곳에 정치권의 배려가 있었다. 그리고 95년 연대에서는 자발적으로 프로크루가 국을 설립했다. 『소흐』의 존재는 '한'의 장사가 된 것 이다. 소흐를 통한 한은 언뜻때때로 한 것 못대 한 비용의 프로크루 2.3배의 비용을 지불하는 것으로 확대한

결국 순직계상산 이익이 있는 모든 스포츠에는 '광고'의 형태를 띤 '상업적본'이 따라 다니다. 모든 스포츠 행사는 이제 '철한회사'가 없으면 행사를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고 스포츠의 내재적 가치와 철한회사의 이익에 맞지 않는다면 행사를 할 수조차 못한다.

'스포츠 정신이 살아있는 스포츠는 남아있지 않다'고 말하는 이도 있다. 스포츠는 진짜 스포츠로서 살아남기 위해서라는 '절저'는 물론이고 이제는 '상업적본'으로부터 어떻게 해방될 것인가의 숙제까지 풀어야 하는 이중부담을 안게 되었기 때문이다. 그만큼 스포츠의 해방은 아직은

▶다음호(703호)에는 '지본이 스포츠를 움직인다' 편이 이어
집니다.

전국대학신문기자연합
문화부 공동기자단

외 대 이 이 외 대 이 에 게

학술동아리-우리말 연구회

우리것이 좋은 것이여



우리 학교는 여러 외국말을 많이 접할 수 있는 배움터이다. 이러한 특성상 가운데 우리말연구회는 미국어를 일주일에 앞서 우리말을 먼저 알자는 의의로 88년도에 만들어졌다. 지금 활동하고 있는 모범(모인) 사람의 졸업말, 회원말은 30명 정도이며 지난 한달날에는 붉은 광장에서 우리말 놀이대회를 하여 등 7,000 여대 학우들에게 우리말의 소중함과 아름다움을 일깨워 주고 있다.

그를 위해 한글전용화와 같은 거창한 방법보다는 생활 속에서 잘못 쓰이고 있는 우리말, 우리말에 남아있는 일본말 찌꺼기나 외국말을 찾아내어 바로잡는 것에서부터

우리 학교 교가에도 잘못 쓰인 표현이 있다. '온누리 비치는 외국어대학'은 잘못된 표현이다. 여기에서는 문맥상 외대가 온누리를 밝게 만든다는 뜻으므로 '비추는'이 옳다.

하 성 우
〈사범·한교 3〉

문화 다식

서울

인도어과 25주년 기념 종합예술제
이번주 열려

인도인과 오는 24일(월)부터 29일(토)까지 서울 배
 천에서 25주년 기념 종합 예술제를 개최한다. 행사
 일주일간 인도 관련서적 전시회, 풍물전, 전통 의상
 29일(수) 인도 문학에 관한 학술제, 27일(목)부터
 (토)까지 3일간 '리틀부다' 등 인도에 관련된 영화 10편이
 영의는 영화제가 열린다. 풍물·원아노래·민속춤의 공연
 열리는 예술제 마지막인 29일(토)에는 모교학문의 날
 의, 졸업생·친목회가 함께 열린다. 한편 이날 인도인과
 들이 학술제도 열린다.

과회장인 김경은(동양·인도어 3)군은 "과 창립 25주 맞아 이번 예술제를 동문 선배와 재학생이 함께하는 장 만들기 위해 열심히 준비했다"고 밝혔다.

오늘(24일) 법대 문예패연합 공연 개최
오늘 24일(월) 대학원 소강당에서 '1회 법대 문예패 연
공연'이 개최된다.
법대 노래패 '법신'과 풍물패 '법종' 두 문예패의 연
연으로 열리는 이번 공연은 '우리의 삶에 참 삶이란 무
엇'을 주제로 풍물공연 '동지들 아예 내의 산'과 '가래

법에 걸쳐 연합하는 데 정말 힘들었지만 최선을 다해 준비했다고 말한다.

이유

사월문학반 '시력이 나쁜 사람들'을 주제로 시전시회 열려

문화 동아리 '사월문학비하' 이 오는 24일(월)부터 28일(금)까지 5일간 시청관 전시실에서 '서적이 나쁜 사람들'은
 7개 주제를 선택을 갖는다. 관변과 심의를 거부한 부서의
 점으로 세상을 바라보고자 한 이번 전시회는 일반인에게
 뜻깊은 시를 보여줄 수 있었지만 후시 우리의 '서적이 나쁜
 사람들'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한 것이 아닌지를 생각해 보는
 리로 마련되었다.

1. 회화 일일교(시각·영어 3형)은 "문학은 시대와 생각과
 고 생각된다"며 "이번 행사를 통해 학우들과 함께 확인
 지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밝히고 마무리했다.

한편 전시기간 동안 회보를 발행하고 행사 마지막날 3
관앞에서 야외전시를 가질 계획이다.

그림동아리 '하얀공간' 전시회 개최

학생회관 전시실에서 '33번째 공간전'을 개최했다. '나의
아기'란 주제로 열린 이번 전시회에서는 유화·수채화·그
등 '하안공간' 회원 작품 40여점이 전시되었다.

학생들이 미술분야에 좀 더 많은 사랑과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며 바램을 밝혔다.

또 "전시실의 조명과 음향 시설이 좋지 않아 전시회 관람을 할때 불편을 겪었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 2004 Blackwell Publishing Ltd

가장 안정된 직업 최강의 교수진 7·9급 공무원 개강:매월 1일 -매월 아침 무료특강 07:30~08:30 -매월 마지막 주 일요일 모의고사 실시	공직사항 ● 7·9급 공무원 대상 장학생 선발시험 12월 14일(월)실시 -자세한 사항은 학원문의 요망 ● GROUP STUDY모집중 강정평가사(1·2차) 수험생은 누구나 응시가능 (시험 12월 21일)	진 기 명 교수팀 강정평가사 1·2차 기본 이론반 개강:매월 1일 ● 토저수용법 특강·임형록 변호사 ● 원가회계 · 국제경제특강 「전국최대 합격의 신화가 이어집니다」																																
97.2.설시된 시험에서 전국최대 합격율을 기록한	최강의 단과 교수진	진기명 교수 경제학 개강 12월 1일																																
진용은 교수팀 명강과	<table border="1"> <tr> <td>김재정 교수</td> <td>국어</td> <td>이영현 교수</td> <td>한국사</td> </tr> <tr> <td>유수연 교수</td> <td>종합영어</td> <td>신용희 교수</td> <td>수험영어</td> </tr> <tr> <td>주정환 교수</td> <td>TOEFL</td> <td>히홍석 교수</td> <td>회계원리</td> </tr> <tr> <td>조병욱 교수</td> <td>민법총칙</td> <td>김강민 교수</td> <td>헌법</td> </tr> <tr> <td>조승환 교수</td> <td>물권</td> <td>조영석 교수</td> <td>행정법</td> </tr> <tr> <td></td> <td>형법</td> <td>이양주 교수</td> <td>형사소송법</td> </tr> <tr> <td>김종원 교수</td> <td>행정학</td> <td>학규민 교수</td> <td>국제법</td> </tr> <tr> <td>장세석 교수</td> <td>교정학</td> <td></td> <td></td> </tr> </table>	김재정 교수	국어	이영현 교수	한국사	유수연 교수	종합영어	신용희 교수	수험영어	주정환 교수	TOEFL	히홍석 교수	회계원리	조병욱 교수	민법총칙	김강민 교수	헌법	조승환 교수	물권	조영석 교수	행정법		형법	이양주 교수	형사소송법	김종원 교수	행정학	학규민 교수	국제법	장세석 교수	교정학			법 무 사 반 1월 개강
김재정 교수	국어	이영현 교수	한국사																															
유수연 교수	종합영어	신용희 교수	수험영어																															
주정환 교수	TOEFL	히홍석 교수	회계원리																															
조병욱 교수	민법총칙	김강민 교수	헌법																															
조승환 교수	물권	조영석 교수	행정법																															
	형법	이양주 교수	형사소송법																															
김종원 교수	행정학	학규민 교수	국제법																															
장세석 교수	교정학																																	
법원·검찰 전문강좌		경찰 간부직 문제풀이반																																
최종 점검반 운영 개강:12월 1일 (60일 완성)	정규 이론반 (순환식) 계속 강의	남·여 경찰직 시험 각종 시험 준비생 문의 요망 장애학생 수강료 50% 할인																																
수험가의 신동주자 남부행정고시학원 ☎ (02) 815 · 7819 7839 (노량진 전철역 옆)																																		

PAGODA

별처럼 빛나는 교수진을 모신것이 파고다의 특징입니다

**개강
12월 1일**
현재접수중

■ 98년도 파고다 English 달력을 수강생 여러분께 드립니다

미국인 영어회화

SLE (제원 12월 / 1월 14주 / 1년 완성)

집중영어 회화 (1월 5시간 / 2시간)

영 어

기초 영어회화
TOEIC · TOEFL · G-TELP
GRE · AFKN
READING · WRITING

L. C. (영취 특별과정)

유학 · 진학 · 취업영어
※ 석사 이상의 한국인 강사진

NEW 최신 프로그램

다작필입 영어 (종로, 신촌)
통신영어 강좌 (TEL 777-4401)

일본 어

기초 일본어 (문법 특약) 3달 완성

일본인 회화 (10달 완성)

전문 프로그램

미국 WISCONSIN 대학반

중고 독어 · 불어
중국어 · 스페인어 · 러시아어

http://www.pagodaac.com/

상담문의

종로 (02)274-4000 신촌 (02)717-4000 강남 (02)501-4002
입구동 (02)3442-4000 부산서면 (051)802-5001

외국어 교육의 선구자

파고다외국어학원

학생·직원 참여, 재단(법인)으로부터의 독립 보장돼야

71호에 실린 '도올과 차갑도의 논쟁'에 대한 글을 읽고

누가 도올에게 돌을 던지랴

김용옥교수는 인식의 이중성과 편협함을 비판



필자의 선행가 열이전 버스를 타고 가다가 그 안에서 틀어 놓은 라디오 프로에 무심하게 귀를 기울이게 되었다고 한다. 기독교 관련 프로였나. 화제는 당시 아랍에미리트에 귀고 숨을 잠구었던 국가대표 축구팀에 관한 것이었는데 내용면 측은 연승을 거두며 월드컵 본선 진출의 희망을 심어주는 선수들 뒤에 항상 기도하는 차갑도 감독이 있었고 알라신을 모시는 그쪽 선수들은 우리 선수들한테 케지고 어찌고... 설교 들으며 '이벤'을 연발하는 사회자의 목소리가 더 가깝게 들린다.

10월 하순쯤 신문지상을 통해 논박을 받았던 도올 김용옥과 차갑도 감독 이야기의 세인들의 안에 오르내리면서 작은 파문들을 불러 일으켰다. '속담은(물론 본선 진출이 전제된 속담들이겠지만) 대다수 사람들이 열심히 뛰는 선수와 기도하는 차갑도의 진지한 모습이 뛰가 그리 못 마땅해 트집을 걸고 나오나 싶어 도올의 시비가 사뭇 언짢게 여겨졌던 것 같다. 하지만 버스 안에서 필자의 선행가 아랍집객해 한 그 프로가 보여준 차갑도 감독의 말과 행동이 해석되어지는, 천만 신도를 자랑하는 우리 기독교의 지적 풍토도 그렇게도 유지한 것이었다. '거부 부위한 사탄의 군대에 맞서는 기독교인들의 승리! 오 할렐루야!'

도올은 지난 여름 서울방송 아랍프로에 뜬금 없이 출연해 차마 입에 담지 못할 온갖 저급한

“
신화를 신화로 해석함으로써
그 신화가 속해 있던
날아빠진 세계관으로부터
그 신화를 해방시키는 것
”

- 김용옥

을 굳이 벌이지 않더라도 금기와 터부에 대한 도발과 위선적 언어에 대한 파괴로 읽힐 수 있을 것이다.
그의 저작 중 삼성과 기독교에 대한 비판도 상당수에 이르지만 그가 독실한 기독교 신자인 어머니 밑에서 자란 것과 한때 신학대 학생이기도 했으며 지금도 자기 사상 중 많은 부분이 생

서의 영향을 받았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을 것이다. 도올이 그의 저작들을 통해 비판해 왔던 것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고 그의 제자가 아니라 아담과 이브신 화라고 믿는 놀라운 이해를 보이면서 단군신화는 미신이라고 치부해 버리는 그 인식의 이중성과 편협성이다. 불트만의 성서연구 방법을 지지하며 '신화를 신화로 해석함으로써 그 신화가 속해 있던 날아빠진 세계관으로부터 그 신화를 해방시키는 것'이 그의 사상 내지는 고문헌 연구의 기본 자세인 것이다.

우리 사회에서 종교적, 특히 기독교는 보호받아 할 약자의 위치가 아니다. 외부의 비난은 물론이거니와 양식있는 신학자들의 연구나 비판도 무시되거나 이단시각이 심하다. 교계 내에서 '불신앙의 낙인'은 전횡과도 같은 것인데 이는 과거 군사독재 시절 '불경이 박사'가 당시 사회적 죽음을 의미하던 것과 비견할 만하다. 타인의 자유에 대한 폭력은 아랑이 없음을 이유로 도올을 비판했던 특같은 이유로 우리 기독교에 대한 근본적 비판도 가능한 일이 아닐까.

사실 덧붙이고 인지는 논리로 라디오에 나와 주절거리는 독사의 말과 그 말이 아무렇지 않게 받아들여지고 오히려 힘을 가지며 작용하는 현실의 충위를 심도있게 분석하는 것이 더 진지한 자세가 아닌가 싶다.

김 지 훈
<법·법학 2>

혼자보기
아 깡 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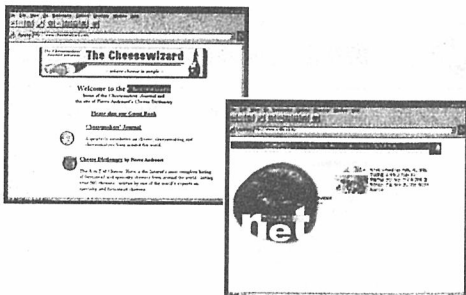
혼자만 감상하기 아까운
외대인의 작품을 찾습니다

문학작품, 서예, 미술, 광고 등
모든 종류의 작품을 확보해 실외보실시요
외대학보는 종류를 가리지 않습니다.

문화비평 - 데이비드 크로넨버그의 1984의 'Video Drom'의 현실화

인터넷, 알고보니 비인간화 지름길

사이버 문화에 잠식당한 현실 인식 필요



미국의 영화감독 데이비드 크로넨버그의 영화 중에 'Video Drom'이란 영화가 있다. 그간 마치 현대의 매스 미디어에 중독된 현대인들의 1984년도 같은 영화였다. 그리고 시간은 컴퓨터와 같이 흘러가서 우리는 1996년 속에 살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우리는 이 1996년이 1984년 특히 크로넨버그의 1984년적인 이미지를 결코 벗어났다고 말할 수 없다. 매스 미디어는 아직도 확실하고 충실한 사회의 새로운 수단으로 활약 중이고 거기에 요즘은 '인터넷'이란 새로운 형태의 가상적인 '사회구조'가 개입되고 있다.

불과 1-2년 전만해도 소수의 컴퓨터 매니아의 전유물이었던 인터넷과 'www.com'은 세상의 모든 것을 대변하기 시작했다. 그것은 고도의 자본주의를 양분 삼아서 무서운 속도로 발전하면서 어느새가 우리 곁에 너무나 친숙한 존재, 바코드보다 더욱 흔하게 접하게 되는 존재가 되었다.

그러나 그것이 혼란을 야기하는 그저 아름다운 그 풍요로운 환상을 제공하는 메신저(Messenger)일까? 필자는 그 질문에 과감하게 '아니오'라고 말하고 싶다. 우리는 인터넷에서 세상을 접하고 하나의 다른 사회(Cyber Society)를 구성해 가면서 점점 스스로를 비인간화 시켜가고 있다.

인터넷이 생겨나면서 'www.com'은 모든 것의 대변자가 되어버리고 사이버 공간 안에서의 또하나의 나름의 존재를 구성하기 시작했다.

우리는 이제 대다수 차를 사기 위해서 전시장에 가서 딜러의 안내를 받으면서 차를 '직접' 보고 성능을 확인해 볼 필요가 없다. 그저 자신의 컴퓨터 퍼스널 컴퓨터를 타고 인터넷의 바다 한 가운데로 나아가서 'www.com'이란 지도를 따라서 자신이 알고자 하는 정보의 대륙에 상륙해서 정보를 얻으면 된다.

결국 현실은 점점 무의미해지고 자신도 그저 PC와 인터넷에만 의존해서 모든 것을 해결하고

스스로가 스스로를 현실 속에서 소외시키고 있다.

그런 현실적인 문제들은 이미 고도의 자본주의의 속에서 철저하게 세뇌 되어버린 현대인들에게는 불안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우리는 어느새 고도로 발달된 지능의 자본 시스템에 불안하게 잠식당할 영혼마저도 빼앗겨 버린 것이다. 이미 멀티미디어의 1984년은 그 시계바늘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우리는 스스로를 위해 창조해 낸 자본들과 시스템들에게 통제를 받는 존재가 되어가고 있다. 그것은 아주 정교한 족쇄를 만들어 스스로의 손과 발을 묶어버린 것과도 같은 것이다.

그 잔인한 현실에서 벗어나기엔 우리는 이미 너무나 나약한 존재가 되어버렸다. 지능적인 고도의 시스템에 지배되는 인간과 인간성의 기계화와 획일화와 복제화는 데이비드 크로넨버그의 악몽만이 아니다. 그것이 이미 당신의 현실이 되어버렸다.

이런 필자의 독설을 아니라고 부인하기 이전부터 자신의 주위를 돌아보자. 부인한다는 것이 불가능한 만큼 당신의 주위를 잠시나마 사이버 문화와 그 가상 현실들을 눈앞에 현실보다 더욱 현실적이라고 신봉하는 사람들을... 어느새 컴퓨터를 알지 못하는 사람은 컴퓨터로 낙인찍히거나 낙오자라는 인식을 받아들이기 힘들고 소외되어 버린다.

이런 잔인한 현실을 당신은 어떻게 받아들이겠는가? 지금 이 순간에도 그 모든것 인류의 꿈이란 가짜 속에서 진행중인 현실이다.

신 호
<경상·경영정보학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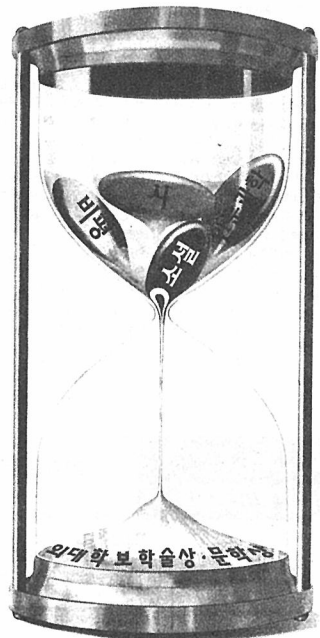


사 진
4 필

「osi 뉴스를 시작하겠습니다. 농산물 수입개방으로 식량자급률이 0%인 우리나라에 미국은, 자국의 전자제품을 전면 수입하지 않으면 쌀교류를 즉각 중단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한편 일본에서도...」
현재까지 가상뉴스가 아니다. 정부의 수입개방정책에 의해 농산물 가격폭락, 농가부채 급증 등 우리 농촌은 파탄해지고 있다. 식량이 무기화 되고 있는 시대에 정권은 국민의 생존이 달린 농촌을 언제까지 깊은 수렁에 떠밀 것인가?

- 지난 18일(화) 여의도 고수부지 금상무대에서 열린 전국 농민대회에서

임승희 기자



대학입시가 아닙니다
외대학보 학술상·문학상 마감 시간입니다

공모기간: 12월12일(금)까지
모집부문: 문학상-시(3편이상), 소설, 수필, 희곡, 비평
학술상-인문과학, 사회과학, 자연과학
상금: 당선료-50만원 (시-40만원)
기작-30만원
유의사항: 작품은 심사용·보관용 2부씩 제출
문의(서울) 961-4152, 4466
용인 0335-30-4112, 4580

민족자주언론
외대학보